

어려운 일에는 '정면돌파'가 해답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48 신통력에 대한 소고

힘 이야기를 했으니 좀 더 해보기로 하지요. 힘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점에서, 힘의 추구는 끝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세게...하는 길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처럼 궁극적 완성을 추구하는 길과 힘을 추구하는 길은 애당초 전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지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불교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열반'이나 '해탈'은 무위법(無爲法)이라 말하고 상대적 크기가 있고 또 변화하는 모든 것들은 유위법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위법의 세계에는 차별이 있을 뿐 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떤 힘의 추구나 도의 완성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통력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스님은 이러이러한 신통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더라"든가, "어떤 도사가 이런 초능력을 발휘했다더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그것이 바로 그분들의 높고도 위대한 경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그것은 구별되어야 하지요. 신통력을 지닌 것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물론 깨달은 분들, 또는 그 궁극적 완성에 가까이 간 분들이 신통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삼명(三明), 육통(六通)이라 하는 신통력이 삼매의 결과로 얻어진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그것이 곧 깨달음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네요.

흠, 나칠게남... 하실 말씀이 있나구요? 왜 '결코'라는 강한 표현을 쓰느냐구요? 신통력을 가지려는 것이 뭐 나쁠 게 있느냐구요? 애크...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나쁠 것은 없나구요. '결코'라는 말을 쓴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다를 뿐 어떤 물질적인 도구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나 신통력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나 무엇이 다르겠어요? 다 같이 괴로움을 낳을 수밖에 없는 탐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칠게남, 그런 것을 탐내지 마시고 올바른 길을 뚜벅 뚜벅 걸어가는 힘이야말로 최고의 신통력이라는 마음 자세로 나가세요. 그런 자세로 뚜벅뚜벅 가다 보면 자연 신통의 힘도 얻으실지 누가 알겠어요? 나칠게남도 가능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초를 치시는 것도 나칠게남의 대단한 신통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그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칠게남이 오랫동안 쌓아 오신 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예요. 조금 방향만 트시면 큰 성취를 이루시며 또한 부수적으로 대단한 신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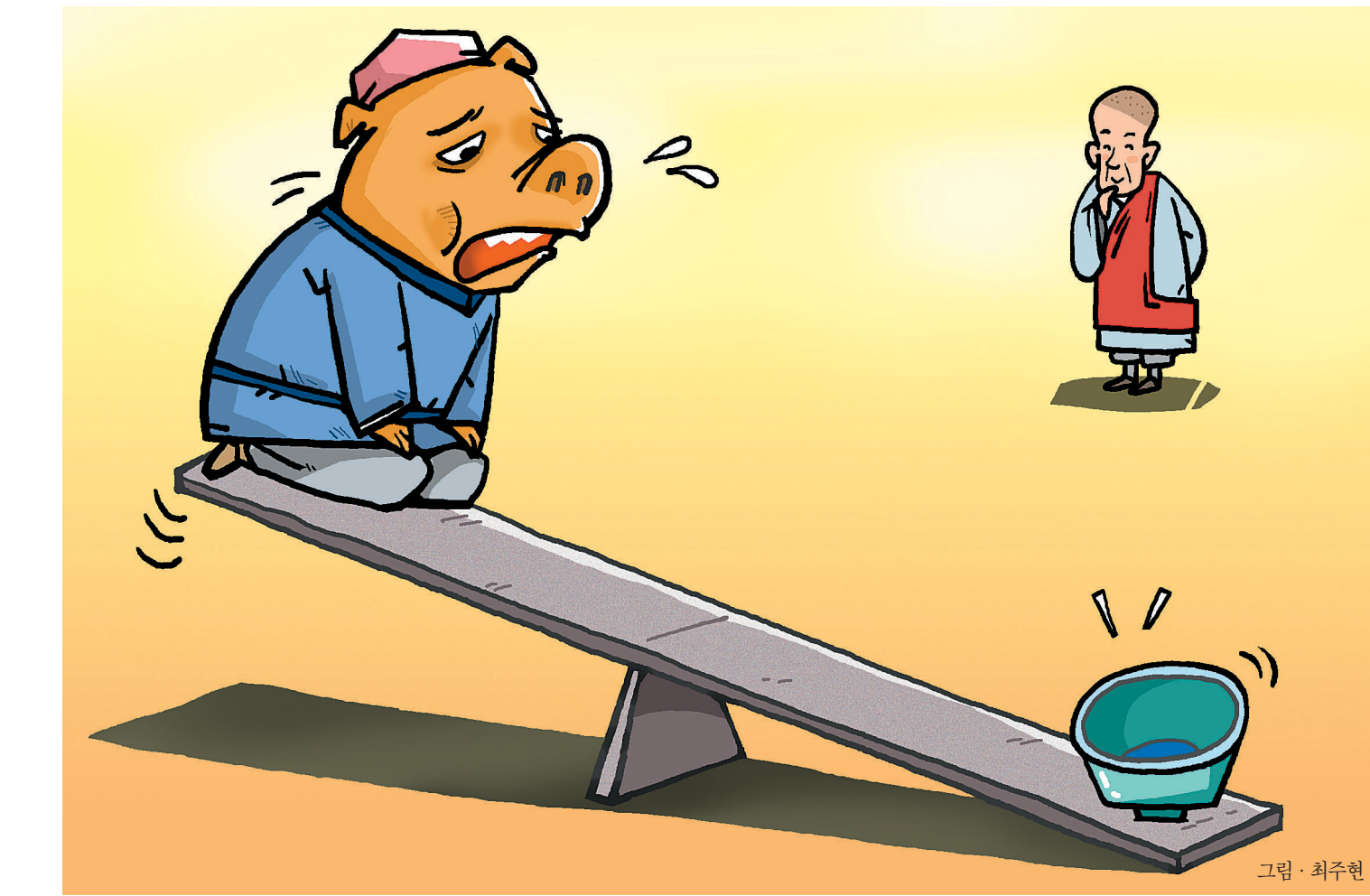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얻으실 겁니다요. 하하.

어허라? 저는 약간 그 동안 당한 복수를 하려는 생각이 있어 약간 비꼬아 한 말인데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 나칠게남... 주변들 돌아보시면 "내 신통력 어때?"하며 으쓱거리시는 것 같군요. 와! 정말 감격이다! 저 정도면 정말 신통력이다!

저분과 말을 섞으면 언제나 제가 당하는 기분 이군요.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럴 수는 없고, 어떤 때는 꼭 한번 놀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대를 하다 보면 꼭 어이없이 제가 당하는 모습이 되어 버리는데... 그건 저하고 이야기하는 차원이 달라서 그럴 뿐이지, 제가 실제로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어허! 여기 무슨 이기고 지는 것이 있느냐구 호통 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맞구 맞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답답하게 하던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금각대왕 은각대왕은 그런 점에서 마군어들 중에서 엄청난 신통을 지닌 마군이 되겠네요. 거기다가 그들이 가진 보배가 참으로 신통한 보배지요? 여러 보배 가운데서도 가장 신기한건 바로 이름을 불려서 대답하면 빨아들어 녹이는 호리병이죠. 그리고 그 호리병의 의미는 앞에서 이름에 대한 집착이 일으키는 장애를 상징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손오공이 그 사실을 알고 거짓 이름을 대고, 그 이름에 대답을 했는데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한번 분석을 해 보지요.

손오공이 거짓 이름을 대고는 거기에 대답하는 과정에도 역시 이름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내 진짜 이름

호로병서 벗어나는 손오공 이름의 분별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 중요

은 손오공이고 공오손은 가짜 이름이지. 진짜 이름이라면 빨려 들어가겠지만, 가짜 이름으로 날 잡아넣을 수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 속에 벌써 몇 번이나 '진짜 이름', '가짜 이름' 해 가면서 이름에 대한 분별과 집착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짜 이름에 대답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름에 대한 분별과 집착을 벗어나지 못했기에 여전히 빨려 들어갈 수밖에요. 바로 이런 대목에서 이 '이름 따먹기' (흠, 삼패선생의 작명 실력이 어땠습니까?) 병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이름이건 가짜 이름이건 상관없어요. 이름에 대한 분별 집착 그 자체를 매개로 해서 빨아들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손오공이 휘 빨려 들어갔지만, 말씀드린 대로 손오공은 태상노군의 화보에서도 견딘 단단무쌍의 몸을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녹은 척 둔갑술로 가짜 몸을 만들어 놓고, 작은 벌레로 변신해 있다 빠져나오고... 결국은 가짜 병을 만들어 바꿔치기하고, 진짜 병으로 병의 주인을 병속에 빨아들여버리는 멋진 반전을 이루는 것이 서유기의 본디 이야기입니다. 이 금각 은각의 이야기는 서유기 가운데서도 매우 재미있고 의미 있는 대목이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유기 어느 대목이 재미있지 않겠느냐구요? 맞습니다. 어디라 할 것 없이 통독을 해 보세요. 그것도 한번

만 하지 마시고... 하하.

아무튼 손오공은 결국 '이름 따먹기' 병의 마수를 벗어나는군요. 그렇다면 손오공은 이제 이름에 대한 분별 집착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하였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손오공이 갑자기 그런 높은 경지에 도달해버리면 뒤의 이야기가 재미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손오공은 여전히 촌스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즐겁게 해 줄 겁니다. 갑자기 서유기가 너무 잠깐 재미없게 될까봐 걱정하지 마시라구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또 뒤뉘수를 때리지요?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이 일행을 시험하기 위해 태상노군에게 부탁하여 일어난 일이라니! 이거 정말 시험당하는 입장에서는 서러워할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서양의 크신 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 아닐까요? 아무리 우리를 위한 시험이라 하더라도 시험에 드는 사람 참 고달프고 짜증나는 일이지요. 그런 심정이 손오공의 투덜거림에 잘 드러납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그 보살도 참으로 지독하군!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와서 구해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요괴들을 시켜 목숨을 위협해? 말이 틀리지 않은가? 평생 혼자 사는 것도 당연해!"

와! 손오공 대단하죠? 관세음보살님이 혼자 사는 것도 성질이 나빠서 그런 거라구... 혹시 정말 그런 것 아닌가 하고 가웃거리시는 분은 없으시겠어요? 어쨌든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험이라는 것이 이토록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참으로 괴로울 때 이것이 바로 나에게 큰 힘을

주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로움을 이겨내는 힘을 주기도 하지요. (맹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심과 괴로움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살아나는 것이요, 편안하고 즐거운 속에서 죽는 것이다" 사람이 근심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고, 편안하고 즐거운 곳에 안주하면 결국 크게 잘못되는 길로 빠진다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고달프게 하며 그 몸을 굼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리며,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활동시키고 참을성을 길러 주어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나라"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큰일을 이룩한 분들의 자취를 보게 되면 대부분 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힘을 키우고 인격적인 위대함을 성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할 때 그것을 꼭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 달아나려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응하여 자신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달아나려 해도 달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느냐고 한탄하고 울부짖어도 절대 온 일이 물러가는 일이 없다는 것도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만큼 더 괴롭기만 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일이 닥치든 귀한 손님 맞아 대접하듯 잘 대접해서 보내려는 마음을 먹는 게 편합니다. 피하려는 마음먹는 만큼 더 괴로우니까, 정면으로 마주보고 승부를 해야 합니다. "응, 너 왔느냐? 그래 어떻게 대접해 줄까?" 이렇게 시건방지게 대응할 일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피하려는 마음먹지 않고 정면으로 딱 마주보면 그토록 괴로워보이던 일이 별 일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피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괴로움을 부추겼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첫 번째 갖추어야 할 자세가 바로 '정면으로 마주보기'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일을 통해 자신을 단련한다는 적극적 마음을 갖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려움을 나에게 대한 시험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괴로운 것이지만, 시험이라고 아예 생각해버리고 대응하는 것은 또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서유기의 지금 대목은 바로 난관에 이런 자세로 대응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시험이었다더라"하는 일화를 통하여, "너희에게 닥친 일도 역시 시험일 수가 있느니라"라고 말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역시 시험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하는 기도에 동참하고 싶은... 이리!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죠? '퀵! 같은 거 하지 않고 당당하게 시험에 응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격증 받아 내겠습니다!'해야 되는 거? 애크...이것도 아닌 듯하네. 다음 시간에 보어요.

선각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敎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선각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험한 사이대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선각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선각를 품다	제19見 참새집	제37見 자식인연
제2見 평은 초대장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38見 형제 인연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39見 도반인연
제4見 차 한 잔	제22見 직거래?	제40見 부부인연
제5見 해인 삼매	제23見 묘혜(妙慧)	제41見 대방광불 회양경..
제6見 창조와 표절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42見 왕(대통령)
제7見 아부선사 웃다	제25見 천도(遷徙)란?	제43見 독각(獨覺)은?
제8見 요지경	제26見 고구마 부처?	제44見 <나>
제9見 말 많은 선각?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28見 개나리는 노랑다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11見 동시구족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12見 법맥?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48見 보시(기부)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31見 다음생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14見 윈드서핑	제32見 종(鐘)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15見 발효식품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16見 한 맛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52見 회암경_7행詩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53見 평은 축제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36見 종교와 현실	

편저자
독각~진귀(獨覺~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 도서출판 왕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북타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